

심맹深盲, 새로운 존재 방식

| 올리버 색스 | 이민아 옮김 |

시각을 잃은 한 사람이 다른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새롭게 존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이 세계 안에 강렬히 존재한다는...(편집자 주).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대해 창조자로서 어느 정도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타고난 뇌나 감각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은 어느 정도이며, 경험을 통해 뇌가 형성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실명 같은 감각 기능의 박탈이 이러한 물음을 새롭게 조명해줄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서 실명하게 되면 하나의 거대한,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받게 될 수 있다.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이 파괴된 가운데 자신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1990년에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이라는 특별한 책을 받았다. 저자는 영국의 종교교육학 교수인 존 혈인데, 그는 어려서는 약시였지만 열세 살에 백내장이 생겨서 4년 만에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서른다섯 살 무렵까지 적당히 유지되었지만, 그후 10년에 걸쳐 시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갈수록 돋보기에 의존해야 했고 사용하는 펜의 두께도 갈수록 굵어졌다. 그러다가 마흔여덟이 되던 1983년에 완전히 실명했다.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은 그후 3년 동안 구술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맹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담겨 있지만, 나에게 맹인이 된 뒤에 시각적 표상과 기억이 서서히 쇠약해지다가 결국에는 (꿈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그가 ‘심맹深盲’이라고 부른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혈이 말하는 심맹은 시각적 표상과 기억의 상실만이 아니라 본다는 생각 자체를 잃어버려서 ‘여기’, ‘저기’, ‘마주 보기’ 같은 개념이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생김새라든가 시각적 특징 같은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허공에 손가락으로 그려보지 않는 한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3의 ‘운동적’ 표상은 있으나, ‘시

각적’ 표상은 없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아내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고 좋아하는 장소와 정든 풍경이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몹시 괴로웠다. 하지만 그것이 실명에 대한 자연의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자 놀랍도록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시각적 표상 능력의 상실을 다른 감각 기능이 강화되는 다음 단계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긴 듯하다. 완전히 맹인이 된 지 2년 뒤, 혈의 시각적 표상과 기억 능력은 선천적 맹인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혈은 심오한 종교적 색채를 띠며 때로 요하네스(1542~1591, 에스파냐의 신비주의자이자 시인, 수도원 개혁 운동가-옮긴이)를 연상시키는 언어로 희열과 묵종으로써 심맹 상태에 자신을 내맡겼다. 그는 심맹 상태란 “정법한 자율의 세계, 스스로 존재하는 세계요… 혼신으로 본다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집약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혈이 말하는 “혼신으로 본다”는 것은 주의를 돌리는 것, 무게중심을 다른 감각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하여 다른 감각기관들이 새로운 힘과 자양분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껏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빗소리가 어떻게 새로운 풍경의 윤곽을 보여주는지 말한다. 비가 잔디밭이나 정원의 수풀을 두드릴 때와 정원과 차도를 가르는 담장을 두드릴 때 각각 다른 소리가 난다고.

비는 모든 것의 윤곽을 드러내주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에 다채로운 빛깔의 담요를 드리운다. 간헐적인 소리로 가득하며 그래서 파편들로 존재하는 세계와 달리, 꾸준히 떨어지는 빗소리가 만들어내는 청각적 경험에는 연속성이 있어서… 하나의 상황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며… 원근감을 제시하며 세계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혈은 청각 경험이 전과 달리 강렬해지고 다른 감각기관들도 예리해져서 자연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눈이 보일 때 알았던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자신이 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강렬한 느낌이었다. 혈에게는 실명이 “암흑의, 역설적 선물”이 되었다. 그는 이것이 ‘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존재 방식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각적 향수로부터, ‘정상’으로 인정받고 싶은 부담감, 아니 허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새로운 목표, 자유와 정체성을 찾았다. 강의는 더욱 풍부해지고, 더욱 거침없이 흘러갔다. 글은 더욱 강하고 깊어졌고,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욱 대담해지고 자신감이 넘쳤다. 자신이 마침내 단단한 반석 위에 섰다는 느낌이 든 것이다.

나에게는 혈의 이야기가 하나의 지각 기능을 박탈당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중심, 새로운 지각적 정체성을 찾아 자신을 철저히 재건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모범으로 읽혔다. 하지만 수십 년간 누려온 풍요롭고도 매력적인 시각적 경험을 소환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시지각적 기억이 그렇게 송두리째 삭제되었다는 것은 참 특이하다고 느꼈다. 물론 그토록 꼼꼼하고 세심하며 명징하게 서술한 혈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지신경학에서는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사람의 뇌가 통념만큼 불변적인 장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분야의 선구자 헬렌 네빌은 언어를 배우기 전에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들(즉, 선천적 농아나 2세 이전에 농아가 된 사람)의 뇌에서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이들의 청각 기관은 살아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다만 그 기능과 활동이 새로운 범주, 즉 시각 언어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변신한다. 네빌의 용어로 말하자면 ‘재할당’된 것이다. 선천적 맹인이거나 아주 어려서 맹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시각피질의 일부 영역이 재할당되어 청각과 촉각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시각피질 일부가 재할당되면서 맹인의 청각과 촉각 외의 감각기관은 시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리한 기능을 수행한다. 1960년대에 3차원 구체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증명한 수학자 베르나르 모랭은 여섯 살에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수학적 성취에는 특수한 공간 감각(시력이 있는 수학자로서는 갖기 어려운 촉지각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패류학자 헤어라트 페르메이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공간 감각과 촉지각 능력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연체동물의 패각의 형태와 윤곽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어 많은 종을 새로 분류했다. 페르메이는 세 살 때 시력을 잃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보고서를 접한 1970년대 신경과학자들은 사람의 뇌에 적어도 생후 2세까지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 혹은 가소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지나면 뇌의 가소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결정적 시기가 지나서 감각 기능이 손상되어도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2008년, 로트피 메라베트와 알바로 파스쿠알 레온의 연구팀은 시력이 정상인 성인이라도 닷새만 눈가리개를 쓰고 지내면 비시각적 인지 및 행동 양상이 나타나며, 이와 더불어 뇌에서도 생리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주었다(그들은 급격하지만 회복 가능한 이러한 변화와 선천성 혹은 생후 초기의 실명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변화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자는 이미 존재했으나 휴지 상태로 남아 있던 여러 감각 간의 연계성을 활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피질 회로의 대대적인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혈의 시각피질은 심지어 성인기에도 시각적 표상 능력을 포기하고 다른 감각(청각, 촉각, 후각)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시각 정보 상실에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끝) 

- 이 글은 『마음의 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올리버 섉스** Oliver Sacks | 1966년 1933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대학 퀸스칼리지에서 의학학위를 받았고, 미국으로 건너 샌프란시스코와 UCLA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했다. 1965년 뉴욕으로 옮겨가 이듬해부터 베스에이브러햄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기 시작한 그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과 뉴욕대학을 거쳐 2007년 가을부터 컬럼비아대학에서 신경정신과 임상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올리버 섉스는 신경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만난 환자들의 사연을 책으로 펴냈고, 그 책을 통해 인간의 뇌와 정신 활동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들려주는 작가이기도 하다. <뉴욕 타임스>는 이처럼 문학적인 글쓰기로 대중과 소통하는 올리버 섉스를 ‘의학계의 게관시인’이라고 부른다. 그는 <오악사가 저널> 《목소리를 보았네》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 《깨어남》 《뮤지코 리아》 《편두통》을 비롯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화성의 인류학자》 《앵클 텅스텐》 등 지금까지 모두 10여 권의 책을 발표했다. 최근작으로는 《환각+hallucinations》(한국어판 근간)이 있다. 음악 애호가로서 평소 바흐와 모차르트를 즐겨 듣는다는 그는 《뮤지코 리아》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과 우리의 뇌, 그리고 마음의 관계를 밝히고자 연구 중이다. 2002년 록펠러대학은 과학에 관한 탁월한 저술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루이스 토머스 상’을 그에게 주었고, 모교인 옥스퍼드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자 | **이민아**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깨어남》 《색색의 섬》 《해석에 반대한다》 《맹신자들》 《정자 전쟁》 《얼굴의 심리학》 《손의 신비》 《허울뿐인 세계화》 《창조자들》 《시간의 지도》 《수집》 등 다수가 있다.

마음의 눈

빛소리가 어떻게 풍경을 보여주는가



올리버 섉스 지음 | 이민아 옮김 | 출판사 알마 | 정가 17,500원

감각기관을 상실하고도, 인간은 충분히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 올리버 섉스가 시각과 뇌의 복잡성, 창조성과 적응력에 대하여 논한 『마음의 눈』. 눈은 볼 수 없지만 뇌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펼쳐낸 책이다. 저자는 필수적인 감각들을 잃고도 세계를 향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환자들의 특별한 사례와 함께 올리버 섉스 자신의 경험 또한 소개한다. 안암 발병 후 증상의 경과를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관찰하고 설명하면서도 환자의 입장에서 느낀 좌절감과 적응 과정을 솔직하게 쓰고 있다.

흔히 마주칠 수 있지만 특이한 눈과 관련된 여러 장애들은 단순히 신경학적인 장애일 뿐,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만큼, 이러한 장애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창조성과 적응력을 탐구하는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언어와 소통의 위력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한다.